

# “아름다운 당신”

##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 환자 소개

#### <개인정보>

- 성명: 권○○ (F/53)
- 종교: 개신교
- 진단명: 침샘암
- 과거력: 당뇨, 2007년 침샘암 부위 절제
- 입원 경과: 환자는 2007년 침샘암(Adenoid cystic carcinoma)으로 아주대병원에서 절제, 그 후 2019년에 침샘암 재발 및 목, 폐, 뇌전이 확인되었으나 항암, 방사선 치료하지 않고 민간 요법 받아왔음. 그 이후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외래 및 입원 치료해 왔으며 호스피스 케어 위

해 본원 내원하심.

#### <호스피스 등록 시 상태>

- 활동 상태: ECOG 4
- 의식 상태: 명료
- 배뇨: 자연배뇨 하루 1000~2000cc
- 배변: 변비 호소
- 활력 징후: 혈압, 맥박, 호흡, 체온 양호
- 신체 검진: 우측 뺨 암 부위 통증, 어지러움 (Hb 6.9로 수혈 시행)

### 진료 부분

#### <병력>

- 2007년 침샘암으로 아주대병원에서 절제.
- 2019.01 암 재발 및 목, 폐, 뇌 전이. 항암, 방사선 치료하지 않고 민간요법 받음  
그 후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진료 봐왔으며 호스피스 케어 위해 본과 내원
- 2023.05.13~06.17 우측 뺨 암 부위 통증 조절 등의 완화 돌봄 위해 본과 입원 후 퇴원
- 2023.08.01~09.16 통증 악화, 기력 저하 있어 2회차 입원 후 퇴원
- 2023.08.22 2회차 입원 시 우측 뺨 암 부위 상처 심하였고, 식사에 어려움이 있어 위루술 시행함(PEG insertion)

- 2023.09.28~10.03, 2023.10.28~10.29 가정호스피스 하며 몇 차례 재입원
- 2023.11.11 구강 내 출혈, 어지러움이 있어 응급실 경우 5회차 입원
- 2023.11.18 호흡저하, 혈압 저하 보이며 임종.

#### <주 증상에 따른 진료 과정>

##### #1. 통증

##### (사정)

- 우측 뺨 암 부위 상처 통증
- 우측 뺨 암 부위가 커 식이 섭취 불량

##### (치료 계획 및 증제)

- 통증 유발 요인 확인
- 통증에 대해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교

육함.

- 통증 양상 및 통증 강도, 돌발성 통증의 빈도와 강도를 고려하여 진통제 용량 조절함.

**(반응)**

- 통증 강도에 따른 기저 진통제 용량 증량 및 속효성 진통제 조정 후 속효성 진통제 투여 횟수 감소
- NRS 2점 이하로 감소
- 입원 초에 비해 통증 있을 시 통증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 보임.

## #2. 경구 식이 어려움

**(사정)**

- 우측 뺨 암 부위가 커 식이 섭취 불량
- 영양 보급액을 드실 때 자주 코로 흘러나옴.

**(치료 계획 및 중재)**

- 영상의학과 협진하에 위루술 시행함.
- 위루관 식이 소량부터 시작하며 차츰 증량

**(반응)**

- 위루술 시술 직후에는 통증 등의 불편감 호소
- 적응되면서 불편감 감소, 안정적인 영양 공급

## #3. 구강 내 출혈

**(사정)**

- 평소 간헐적인 출혈
- 종이컵 한 컵 정도의 지속적인 출혈 있어 응급실 경유하여 재입원
- 구강 내 출혈, 양 비강 막힘으로 답답함을 호소

**(치료 계획 및 중재)**

- 트라넥삼 지혈제 사용
- 적극적인 활력 징후 체크, 충분한 수액 제공
- 갑작스러운 출혈 또는 분비물 증가로 인한 기도 폐색 및 임종 가능성에 대해 보호자 설명

**(반응)**

- 입원 2~3일 뒤부터 저산소증, 호흡불량, 의식 저하
- 내원 1주일 뒤 호흡저하, 혈압 저하, 소변량 감소 보이며 임종하심.

## 간호 부분

### <간호학적 진단>

#### #1. 악성 종양과 관련된 통증

**(사정)**

- “얼굴이 찌르듯이 아파요.” 악성 종양이 얼굴에 있어 진물이 나고 안구가 튀어나오고 있음.
- 전신, 얼굴 등 찌르는 듯한 통증 호소하며 급성 통증 시 NRS 7~8점 표현함.
- 구강암이 커져 음식물 섭취가 어렵고 얼굴에 있는 상처로 음식물 흘러내려 감염의 위험성 높아지고 음식물 섭취 후 통증 호소함. (구강 섭취 욕구 높음)
- 가정에서 중학생 딸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함.

**(계획 및 중재)**

- 통증 시 의료진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하여 조절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교육함.
- cancer wound에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게 되면 출혈, 감염 등이 생길 수 있어 자극을 최소화 하도록 교육하고 PEG 삽입으로 구강 섭취를 줄이고 상처 부위를 지속적으로 소독관리 함.
-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통증 유발 요인 조절 욕구를 파악하여 팀 내에서 논의함.
- IV PCA를 가지고 가정 호스피스 연계하여 퇴원함.

**(반응/평가)**

- 환자는 적극적으로 통증 표현하여 조절하였음.
- PEG 삽관과 상처 소독 교육 후 피부 자극 행

- 위 감소하였고, cancer wound 통증이 완화되었음.
- 적절한 약물 사용하며 통증 사정 점수 NRS 1~2점으로 감소함.
- 퇴원 후 가정에서 통증 조절이 가능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만족감을 표현함.

## #2. 상황적 자존감 저하[body image]

### (사정)

- “얼굴 종양 때문에 사진 찍기 싫어요.”
- 타인과 대면을 어려워하며 병실에서도 항상 커튼을 치고 있음.
- 항상 손거울을 들고 생활하며 수시로 얼굴을 바라보고 흘러내리는 체액을 수시로 면봉으로 닦아내고 있음.
- 예쁜 것을 좋아한다고 표현하면서도 본인의 얼굴을 보며 우울하다고 표현하고 우는 모습 보임.
- 가정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 불안하고 우울감 표현함.

### (계획 및 중재)

- 환자에게 자주 방문하여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함.

- 각종 요법이나 이벤트 시행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예쁜 마스크와 소품을 이용하여 종양 부위를 가리고 사진을 찍어 제공함.
- 감염의 위험성을 설명하며 상처 안쪽을 만지지 않도록 교육함.
- 적극적인 wound care를 통해 얼굴에 있는 상처가 좋아지는 모습을 관찰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도록 격려함.
- 환자가 자신 있어 하는 캘리그래피 & 그림그리기 활동을 통해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칭찬함.
- 가정 호스피스 방문 시 요법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함.

### (반응/평가)

- 이벤트 시에 사진 찍은 것을 딸에게 보내고 의료진에게 자랑함.
- 의료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캘리그래피로 만들어 선물함.
- 거울을 보며 좋아졌다고 자랑하며 밝은 모습 보임.
- 환자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함.
- 가정호스피스 방문을 통해 안정되고 엄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시간을 보냄.

## 사회복지 부분

### <개인력>

- 1남 4녀 중 넷째, 기혼, 슬하 1녀
- 남편, 딸과 3인 가구로 생활
- 개신교, 가정주부, 차상위 1종
- 병진 성격: 내향적, 배려심이 많은 편
- 말기상태 인식, 실비보험 有
- 대체의학을 공부하는 남편을 따라 인도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한국 귀국한 후, 가정주부로 육아와 가사를 돌보며 취미로 그림, 캘리그래피 등을 즐기며 생활

- 침샘암 진단 후, 항암치료 거부하고 대체요법 시행
- 남편의 근로와 학령기 자녀의 학업으로 주로 가정에서 홀로 가료해 오다가 안면 부위 상처와 통증 악화로 환자는 호스피스 치료를 원하였으나, 남편의 반대로 보류해 오다가 증상 악화 심화되어 호스피스 병동 입원하였고, 이후, 가정호스피스 병행하며 입·퇴원 반복함.
- 딸과 유대감이 높고, 자신의 투병으로 인해 또래보다 성숙한 미성년 딸에 대한 안타까움과 자

- 신의 사망 후, 남겨질 딸에 대한 걱정이 많은 편.
- 침샘암으로, 안면 부위 상처로 인한 외모 변화와 구취 등으로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는 모습 관찰됨.

### <가족력>

1. 배우자: 주 의사결정자, 주 치료비 부담자, 주 수입원, 운전직
  - 인도에서 대체의학 자격을 취득 후, 한국 입국하여 복지관 셔틀 기사로 근무
  - 생활고로 간헐적으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스스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내원하여 차상위 대상, 급식 수당 등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등 생활력이 강한 편
  - 근로로 인해 환자 간병을 전담하기 어려움을 호소
  - 환자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후에도 대체의학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며, 호스피스 치료에 낮은 이해도
  - 간헐적인 환자의 면회 시에도 환자를 돌보기보다 근로 관련한 사무에 집중하는 태도 관찰됨.
  - 환자의 말기상태를 인식하고 있으나, 장례 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태도
2. 딸: 중학 2년, 주 간병 제공자
  - 환자의 말기상황에 대해 인식
  - 가정 내에서 주 간병 제공자로, 하교 후 또래와 어울리기보다 일찍 귀가하여 환자의 드레싱을 돕는 등 환자 돌봄 역할을 수행함.
3. 형제들: 1남 4녀 중 넷째
  - 자매들과 자주 연락하며 유대감 높은 편이나 원거리로 왕래가 소원한 편
  - 간헐적으로 인근에 거주하는 언니가 간병을 지원하기도 함.

### <사정>

1. 투병 기간 대부분 가족 없이 홀로 가료하는데

- 대한 외로움, 심리적 안정감 미약
- 재원 중, 가족과 함께 있는 다른 환자에 대한 부러움, 가정에서 홀로 가료하는데 대한 아쉬움을 표현
  2. 안면 부위 상처로 인한 외모 변화, 구취 등으로 인한 자신감 하락
    - 병실 내에서 커튼을 치고 홀로 있으려는 모습 보이며, 얼굴을 가리거나, 타인과 대면을 피하는 태도
    - 안면 부위 병변 진행으로 인한 시야 확보 어려움, 거동 제한 등 고립된 병동 생활
  3. 호스피스 치료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증상 악화, 통증에 대한 불안.
  4. 퇴원 시 가족 내 주 간병 제공자 미비로 인한 가정호스피스 연계 제한.
  5. 가족 대화 및 감정표현 미약
  6. 남편의 장례 계획 수립 회피로 인한 장례 계획 부재

### <개입 및 결과>

1. 지속적인 병실 방문 및 지지적 면담 통해 호스피스 치료 기간 중 호스피스 팀원이 환자와 함께하고 있다는 유대감과 신뢰감을 형성
  - 가정호스피스 연계 퇴원하여 가정방문 시, 요법과 이벤트 시행을 통한 사회적 지지 제공, 원목 지지 위한 원목팀 기도 방문 연계
2. 요법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자기표현 및 환기 유도
  - 이벤트, 요법 등의 참여 시, 활동사진을 촬영한 후, 병변 부위를 보정한 사진으로 인화, 전달하여 자신감 및 자존감 향상 유도
  - 점차 커튼을 걷고 의료진은 물론, 병실 내 타 환자와 가족, 자원봉사자들과도 대화를 나누며 타인과 교류하는 모습 관찰됨.
3. 호스피스 완화치료가 병의 진행을 막을 수는 없으나, 환자의 투병 기간 나타나는 증상 완

- 화를 위해 의료진이 관심을 두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불안감 완화 유도
- 환자 또한, 의료진에게 통증과 증상을 참지 않고 표현하도록 교육, 격려.
4. 가정 복귀 퇴원 시, 남편과 딸이 근로와 학업으로 인해 환자에게 연속적인 돌봄 제공이 제한되어 환자가 홀로 가료하는 문제가 유지될 우려됨을 설명하고, 출석하는 교회의 교우로부터 낮 시간에 돌봄을 제공받기로 하고 배우자가 퇴근 후, 돌봄 제공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함.
  5. 환자가 가족과 지인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도록 평소 환자의 미술 취미활동을 활용하

- 여 작품을 만들어 선물을 계획
  - 필요한 재료를 준비, 제공하였으며, 환자는 작업을 진행하며 가족과 지인뿐만 아니라, 의료진을 떠올리며 자신의 주변에 고마운 사람이 많이 있음을 상기하고, 감사와 나눔의 기쁨을 표현하는 등 긍정적 태도로 변화하는 모습 관찰됨.
  - 가정방문 시, 자녀와 함께 손 석고를 만들어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이벤트를 계획하였으나 학령기인 자녀와의 일정 조율이 어려워 진행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
6. 남편에게 사회복지 정보 제공 교육 통해 장례 정보를 제공하고, 가족 내 장례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장례 계획 수립을 격려함.

## 원목 부분

### <영적 사정 및 진단>

개신교 신자인 그녀는 선교사 일도 하였기에 늘 성경을 읽거나 성경 문제집을 풀었으며, 방문할 때마다, 성경 말씀을 이어폰으로 듣는 모습이었고, 남편과 중3의 딸이 있기는 하였지만 홀로 병상 생활을 한 그녀는 외로움과 딸에 대한 걱정이 대부분이었다.

환자를 방문하여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그녀의 곁에 있으면서 공감하여 주고 옆에서 함께 해주는 것뿐이었다. 그럴 때마다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 <영적 돌봄>

#### #1. 지속적인 방문과 돌봄

원목자가 만난 환자는 선교사를 하다가 늦게 만난 남편과 현재 중 3인 딸이 한 명 있었으며, 그 딸이 엄마를 닮아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하며 딸의 그림을 보여주며 자랑하는 평범한 엄마였다. 환자는 그런 딸을 두고 가는 마음이 아프지만,

주님께서 키워주시리라는 믿음으로 지금의 아픔을 이겨 나가고 있다고 하였다.

힘겨워하는 환자를 동반하는 일은 어려움이 컸지만, 환자가 가족에게 지지받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원목자가 매일 방문하며 함께 기도하고 말동무도 해주며 카드 그림 조각을 얻어 그림을 그리며 함께 할 때 기뻐하는 그녀의 웃음은 육백만 불짜리였다.

#### #2. 가족과의 마지막 인사

몇 차례 재입원하며 임종을 앞둔 마지막 입원 시 병실을 방문하였을 때, 새우잠을 자는 딸을 만나게 되었다. 환자인 엄마가 걱정하는 예쁜 딸이었다. 첫 만남이었지만, 엄마의 붕어빵인 딸은 엄마 귀에 “엄마 편안히 가세요, 감사해요, 아빠하고 행복하게 지낼게요. 걱정 다 내려놓으세요.” 하고 인사하도록 지지해 주었으며 함께 인사도 했고 임종 기도로 영원한 천상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했다.